

GS칼텍스, 소비자대상 수상

GS칼텍스가 정유기업 최초로 한국소비자학회가 주관하는 2009년 소비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비자대상은 소비자학회가 고객만족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등 소비자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으며 2007년 제정됐다.

2007년에는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이, 2008년에는 GS건설과 유한킴벌리가 수상했다.

소비자학회 관계자는 “GS칼텍스가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종합 에너지기업으로서 소비자에게 기분 좋은 기업으로 다가가고자 펼쳐온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주유소와 충전소 현장 서비스, 보너스카드와 제휴카드 할인, 전시회 후원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으며 나눔 문화를 확산키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소비자학회는 국내 소비자학 분야 학회로 경영학과 소비자학, 심리학, 법학 등 학문분야에서 활동하는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화학저널 2009/05/08>